

LGBT 그림책은 국내에서 어떻게 번역되는가?: 텍스트와 파라텍스트 고찰*

정신예(한국외국어대학교)

성승은(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LGBT¹⁾는 이제 세계적으로 드라마, 영화, 광고 등의 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인 ‘아씨두리안’, 동성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메리퀴어’ 등이 방영되며 LGBT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LGBT 도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도서도 포함된다(성승은과 신보정, 2022; 편정인, 2020).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국가별로 동성애가 사회에서 수용되는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44%로, 미국 72%, 영국 86%, 캐나다 85%, 일본 68%에 비해 낮는데, 한국의 수치는 2002년의 25%에 비해서 증가한 것이다(Poushter & Kent, 2020).

* 본 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연구 지원비를 받아 수행되었음.

본 연구는 정신예의 석사학위논문(2024)을 보완, 발전시킨 것임.

1) Lesbian(레즈비언), Gay(게이), Bisexual(바이섹슈얼), Transgender(트랜스젠더)의 약자이다. 더 상세한 내용은 2.1에서 논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LGBT 그림책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책의 대상 독자가 꼭 어린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나, 어린이가 주요 독자인 경우가 많음을 볼 때 이 소재가 연령대가 낮은 어린이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책을 비롯한 어린이문학은 책을 출판, 선정 및 구매하는 어른의 관점이 관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어떤 것이 어린이에게 좋은 책인가에 대한 성인의 시각이 책의 출판이나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LGBT 주제에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이러한 성인의 관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 LGBT 그림책은 어린이는 물론 책을 구매하고 함께 읽는 어른도 독자로 참여함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국내의 LGBT 번역 그림책이 최초의 출판부터 현재까지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²⁾과 관련된 표현을 번역하는 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출판사가 LGBT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측면과 파라텍스트 측면으로 나누어 탐색하되, 텍스트 분석에서는 원문의 젠더 정체성 표현이 번역문에서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지 혹은 암시적으로 나타나는지 고찰하고, 파라텍스트 분석에서는 해당 출판사가 LGBT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보이는지를 홈페이지에서의 책 소개 및 리뷰와 뒤표지 문구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LGBT, 성소수자, 젠더 정체성과 번역

동성애, LGBT, LGBTQ, LGBTQ+, LGBTQIA, 퀴어 등 많은 관련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가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동성애’는 현대에는 사용을 조심해야 하는 표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Pouchter & Kent, 2020, p. 2). LGBT라는 용어는 2000년대에 이르러 사용되

2) 생물학적 성과 별개로 스스로 느끼는 개인의 자아상을 말한다(김규연과 하지수, 2020, p. 6). 더 상세한 내용은 2.1에서 논한다.

였으며(Blakemore, 2021), 이후 LGBTQ, LGBTQ+, LGBTQIA, LGBTQIA+ 등 구체적인 구분을 나타내기 위해 점차 더 긴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퀴어’ 역시 사용이 빈번한데(Luecke, 2023; Matos & Wargo, 2019; Świetlicki, 2020) 본고는 LGBT라는 표현을 일관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LGBT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을 ‘성소수자’라고 칭한다. ‘성소수자’(sexual minority)라는 표현도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Mizzi & Walton, 2014), 대안을 찾지 못해 이를 사용한다.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이란 자신에 대해 남성, 여성, 소년, 소녀, 트랜스젠더 등 스스로 느끼는 내재적 감각을 말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p. 20). 여기서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과 구별되며 성장 과정이나 주변 요인에 의해 수정되거나 확장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김규연과 하지수, 2020, p. 6).

젠더 관련 연구는 페미니즘 사상과 결합하여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1차, 2차 페러다임으로 불리기도 한다. 1차 페러다임에서는 여성 운동, 페미니스트 이론이 주를 이루며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2차 페러다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이항 대립에서 벗어나 성적 지향성과 젠더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적용하기 시작했다(이상빈, 2012, pp. 28-31). 이것은 LGBT에 대한 논의가 페미니즘과 연속선상에 있음을 뜻한다(Flotow, 2020, pp. 183-185). 본고는 2차 페러다임에 따른 젠더 번역을 그림책 위주로 고찰하고자 한다.

어린이 청소년 문학에서의 LGBT 번역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Epstein(2017), Morillas(2021), Tarif(2018)의 연구에서는 LGBT의 사회적 수용과 번역서에서의 젠더 정체성 표현을 논하고 있으며 LGBT 어린이 도서를 번역할 때 출판사의 관점과 사회적 인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국내 연구 역시 소수인데 신보정(2022)은 어린이 청소년 문학 시스템의 참여 주체인 학부모, 교사, 출판사, 권장 도서 목록, 번역가가 LGBT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해 통시적으로 분석했다. 성승은과 신보정(2023)은 국내의 어린이 청소년 도서에서 LGBT 주제가 번역서를 통해 처음 소개되고 확장되었음을 보인다. 성승은(2018)은 청소년 문학에서 LGBT 관련 용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파라텍스트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는 주로 수용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파라텍스트를 살펴보아 텍스트 분석을 다루지 못했

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파라텍스트와 텍스트 분석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본고의 분석 대상인 그림책은 그 독자가 어린이인지 성인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2 그림책의 독자

그림책은 어린이가 대상 독자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를 독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책 중에서 상당수가 그림책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Barbara Bader나 Perry Nodelmen 같은 저명한 아동문학 비평가도 각각 1976년과 1988년에 그림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Beckett, 2012, p. 3). 그러나 실제로는 그림책의 독자가 어린이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림책은 어린이와 어른 독자가 책을 함께 읽어나가는 경험을 선사하면서 폭넓은 연령대를 아우른다. Beckett은 그림책을 전 연령을 아우르는 크로스오버 장르(crossover genre)라고 강조한다(2012, pp. 1-3).

그림책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어린이문학은 어린이와 어른의 이중 독자를 가진다(Alvstad, 2010, p. 24; Jill, 1995, p. 55; Shavit, 1986/2006). 어린이가 주된 독자라도 책을 출판하고, 선정하고, 구매하여 같이 읽어주는 것은 어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어린이문학의 걸작이기도 하지만 어른을 위한 작품으로도 인정받는 대표적인 크로스오버 문학이다(이성엽, 2022, p. 2). 어린이문학 저자는 성인 독자의 즐거움을 위해 인유(allusion)와 같은 다양한 장치를 넣기도 한다(Lukens, 2003, p.151).

어린이책이 이중 독자를 가진다는 점은 번역 시 어려움을 야기한다. 성승은(2013)은 어린이문학에 내재한 이중 독자층에 대한 번역 양상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며 이러한 특징은 번역자들에게 도전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성엽(2022)은 상호텍스트성이 있는 그림책은 독자의 인지를 전제로 하므로 어린이와 어른의 해석이 서로 교차하거나 갈라지기도 한다고 역설한다. 어린이문학 번역에서는 어린이 독자를 위한 대표적인 번역 방법의 하나로 명시화(explicitation)가 거론되는데 아래에서는 이를 더 상세히 고찰한다. 본고의 텍스트 분석에서 명시화와 암시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이다.

2.3 명시화와 암시화

명시화(explicitation)와 암시화(implication)는 번역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명시화는 원문의 내용을 번역에서 더 명료한 표현으로 바꾸거나 첨가하는 것이며 암시화는 원문의 내용을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거나 생략하는 것이다. 이중 특히 명시화는 번역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방법으로 일각에서는 이를 번역보편소로 보기도 한다(Munday et al., 2022, p. 157). 처음 명시화를 언급한 것은 Vinay와 Darbelnet(1958/1995)로, 원문에서는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알 수 있으므로 암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착어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상의 기법(p. 342)이라고 소개한다. 또한 암시화는 원문에서는 명시적인 것을 도착어에서는 암시적으로 나타내어 상황이나 맥락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다소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다.

명시화를 집중적으로 논한 Klaudy와 Károly(2005)는 명시화를 의무적(obligatory) 명시화와 선택적(optional) 명시화, 혹은 대칭과 비대칭(symmetrical and asymmetrical) 명시화로 나누었다. 원문을 번역하여 명시화된 표현을 다시 원문의 언어로 바꾸면 항상 다시 암시화되는 것이 대칭의 명시화이다. 반면 번역에서 명시화된 표현을 다시 원문의 언어로 바꾸었을 때 원문과 동일하게 암시화되어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비대칭의 명시화이다. 본고의 명시화는 이 구분에 따르면 비대칭의 명시화이다. 명시화는 또한 텍스트의 응집성(cohesion)과 관련되어 논의되기도 하는데, 번역에서는 원문 대비 지시어, 접속사, 어휘 등의 차원에서 텍스트가 더 촘촘하게 연결되는 것을 명시화로 보기도 한다(Blum-Kulka, 1986/2004).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되, 원문에서는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유추할 수 있는 의미나 정보를 번역문에서 더 명료하게 표현하거나 첨가한 경우를 명시화로 본다. 암시화는 원문의 의미나 정보를 더 일반적이거나 단순화해서 표현하거나 원문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개념은 김혜립(2018, pp. 307-308)의 정의와 일치한다.

어린이문학 번역에서 특히 명시화가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 인지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 원문의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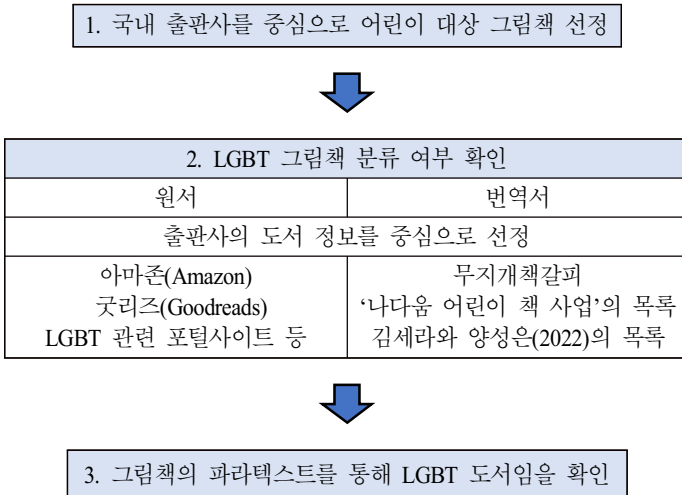
것으로 보고 있다(Frank, 2007, p. 17; Lopez, 2006; Shih, 2008). 그런데 본고의 분석 대상 LGBT 도서의 번역에서는 명시화와 함께 암시화도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LGBT가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원문의 특정한 표현이나 내용이 번역서에서는 간접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명시화와 암시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LGBT 번역 그림책에서 나타나는 젠더 정체성 표현 변이와 출판사가 LGBT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세 과정을 거쳐 LGBT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그림 1

텍스트 선정 방법



첫째, 원서와 번역서의 대상 독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판되는 도서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 출판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출판사의 도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서들을 온라인 서점 및 도서관에서 모두 검색하여 도서 분류 기준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출간된 LGBT 번역 그림책을 전수조사하였다.

둘째, LGBT 그림책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서와 번역서의 출판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출판사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원서의 경우, 영어 외에 다른 언어도 포함하였고 아마존(Amazon)과 굿리즈(Goodreads)에서 LGBT 그림책으로 분류된 도서 목록을 활용하였다. 더불어 LGBT와 관련된 문헌과 소품만을 취급하여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스토어인 Queer Lit와 같은 LGBT 관련 포털사이트와 스톤웰 북어워드(Stonewall BookAward)³⁾ 수상 이력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번역서의 경우, 퀴어 문학 종합 플랫폼인 무지개책갈피의 국외 번역 도서 목록과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한 ‘나다움 어린이 책 사업’⁴⁾의 목록을 참고하였다. 이외에도 LGBT 그림책의 창작 도서와 번역 도서에 나타나는 퀴어 이미지를 다룬 김세라와 양성은(2022)의 목록을 반영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선정된 도서임에도 그림책의 내용이 LGBT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경우, 그림책의 저자 혹은 출판사와의 인터뷰, 신문 기사와 같은 자료를 통해 LGBT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확인한 후 분석 대상 도서에 포함하였다. 가령 『인어를 믿나요?』는 주인공 남자아이가 인어가 되고 싶어 하는 내용을 그렸으나 LGBT를 직접 드러내는 글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Jessica Love는 가디언(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 친구와의 대화가 이 책의 영감이 되었다”고 밝혔다(Flood, 2019). 또한 LGBT 커뮤니티에서는 인간의 상반신과 물고기의 하반신을 가진 인어의 이질적인 면이 성소수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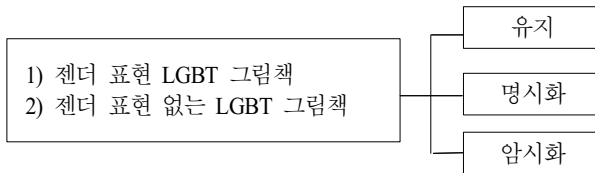
3)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LGBT 성인 문학, 논픽션, 어린이문학 각 분야에 수여한다.

4) ‘나다움 어린이 책 사업’은 자기 긍정, 다양성, 공존을 주제로 권장 도서를 선정해 학교 도서관에 보급하는 문화 사업이었다. 하지만 극단적인 보수단체와 종교단체 등에 의해 선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시비가 벌어지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김대유, 2021, p. 2). 따라서 권장 도서는 모두 회수되고 사업이 종료되었다.

어는 LGBT의 상징이 되었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에 등장하는 인어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John, 2020).

텍스트와 파라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텍스트 분석의 경우, 원문과 번역문의 큰 차이가 없는 시각적 요소는 제외하고 글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 번째, 그림책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표현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다.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같은 젠더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구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면 1) 젠더 정체성 표현이 드러난 LGBT 그림책(이하 젠더 표현 LGBT 그림책)으로 분류하였고, LGBT 그림책임에도 젠더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경우 2) 젠더 정체성 표현이 드러나지 않은 LGBT 그림책(이하 젠더 표현 없는 LGBT 그림책)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젠더 정체성 표현에 있어서 두드러진 번역 변이 양상을 ‘유지’, ‘명시화’, ‘암시화’로 항목화하여 살펴보았다. 영어 외 원서의 경우 번역 플랫폼을 통해 전문번역사에게 의뢰 후 진행하였다.

그림 2
텍스트 분석 방법



파라텍스트의 경우, 출판사들이 ST의 LGBT 주제를 TT에서 더욱 드러냈는지, 감췄는지, 혹은 주제를 변경하였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초기 출간부터 현재까지 국내 출판사가 제공하는 책 소개 및 리뷰와 LGBT 그림책 뒤표지를 고찰한다. 파라텍스트 분석에서도 텍스트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젠더 표현 LGBT 그림책과 젠더 표현 없는 LGBT 그림책 분류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원서와 번역서의 출판사가 각각 제공하는 책 소개 및 리뷰를 서로 비교하고자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국외 도서 사이트인 굿리즈(Goodreads)와

5) LGBT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인 Queer History is Cornish History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 History: <https://queerkernow.co.uk/mermaids-in-cornish-folklore>

아마존(Amazon)을 검색했으나, 이들 사이트에 기재된 책 소개 및 리뷰가 출판사에서 제공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ST의 파라텍스트는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림 3

파라텍스트 분석 방법

책 소개, 리뷰, 뒤표지	1) 젠더 표현 LGBT 그림책 2) 젠더 표현 없는 LGBT 그림책
------------------	---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텍스트 분석과 파라텍스트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젠더 정체성 표현’과 ‘LGBT 주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젠더 정체성 표현’은 그림책에서 성소수자의 정체성(게이, 레즈비언 등)이 표현된 것을 말하며 ‘LGBT 주제’는 젠더 정체성 표현을 포함하여 성소수자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용어로 젠더 정체성 표현보다 상위 범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젠더 정체성 표현’은 텍스트 분석과 파라텍스트 분석 모두에서 사용하며 ‘LGBT 주제’는 파라텍스트 분석에서 사용한다.

4.1 LGBT 그림책 텍스트 분석 결과

4.1.1 젠더 정체성 표현이 드러난 LGBT 그림책

본 분류로 나뉜 LGBT 그림책은 총 15권⁶⁾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2012년부터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본 분류로 나뉜 그림책에서 묘사된 젠더 정체성 표현을 분석한 결과, 젠더 정체성 표현 예시는 총 66가지로 세부 항목 횟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분석 대상 도서는 부록을 참고한다.

표 1
젠더 표현 LGBT 그림책의 항목 횟수

젠더 표현 LGBT 그림책			
항목	유지	명시화	암시화
횟수	54	9	3
총횟수	66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유지 항목 먼저 살펴본 후 차례로 명시화, 암시화를 고찰한다.

<예시 1>7)

ST

Now Roy and Silo were fathers. “We’ll call her Tango,” Mr. Gramzay decided, “because it takes two to make a Tango.” Roy and Silo taught Tango how to sing for them when she was hungry. They fed her food from their beaks. They snuggled her in their nest at night. Tango was the very first penguin in the zoo to have two daddies.(밑줄은 연구자의 것)

(Parnell & Richardson, 2005)

TT

로이와 실로는 이제 아빠가 되었어요. 그램지 씨가 말했어요. “아기 이름을 탱고라고 짓자꾸나. 탱고는 혼자서는 출 수 없는 춤이니까.” 로이와 실로는 배가 고플 땐 어떻게 소리를 내면 되는지 가르쳐주었어요. 그리고 부리에서 먹이를 꺼내 먹였어요. 밤에는 꼭 끌어안고 자고요. 동물원에서 아빠가 둘인 펭귄은 탱고가 처음이었어요.

(강이경 역, 2012)

<예시 1>은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의 일부 장면으로 분석 대상 도서 중 가장 초기 작품이며 실화를 배경으로 한 그림책이다. 해당 장면은 산란기에 있는 수컷 펭귄인 로이와 실로가 알이 아닌 돌을 품고 돌보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던 사육사 그램지씨가 그들에게 알을 주어 품게 한 후 새끼인

7) 그림책에는 페이지 표시가 따로 기입되지 않아 저자(혹은 역자)와 연도 출처만 표기한다.

탱고가 탄생한 모습을 그린 장면이다. ST의 “the very first penguin in the zoo to have two daddies”는 탱고의 아빠가 돌임을 묘사하고 있으며 TT에서도 “아빠가 둘인 펭귄은 탱고가 처음”이라 번역되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2>

ST

(ELMWOOD ELEMENTARY SCHOOL)

With a hug goodbye ...

Stella dashed to her cubby and raced to her spot. Mrs. Abbott had a surprise for the class!

(Schiffer, 2015)

TT

(엘름우드 초등학교)

아빠, 파파와 인사를 하고 ...

스텔라는 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김보람 역, 2018)



<예시 2>는 2018년에 출간된 『스텔라네 가족』의 장면⁸⁾으로 학교 등교 전 인사하는 모습이다. 이 책은 주인공인 스텔라의 학교 친구들을 통해 흑

8) 그림 사용을 허락받기 위해 출판사에 연락한 결과 한국저작권센터(Korea Copyright Center Inc)로 연결이 되었고,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허락한다는 안내를 받았다(2024. 2. 6.). 이에 따라 예시에 필요한 그림을 본 논문에서 사용한다.

인과 백인 가족, 동성 가족, 대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여주고 어머니날 학교 행사로 아빠만 돌인 스텔라가 고민에 빠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림책의 첫 장에는 학교가 등장하고 다음 장에 나타난 ST 표현인 “With a hug goodbye …”가 TT에서 “아빠, 파파와 인사를 하고 …”로 번역되었다. ST에서는 그림에서만 나타난 아빠 둘과 인사한다는 함축적 의미가 TT에서는 글 텍스트로 명시화됨으로써 젠더 정체성 표현이 ST에 비해 TT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예시 3>

ST

Ce soir, Julie est découragée. Et si c'était l'ombre qui avait raison.

[한국어 번역: 오늘밤 줄리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림자가 맞는 거라면?]

Elle n'est peut-être qu'un garçon... manqué en plus, avec cette fente entre les cuisses qu'elle aime bien toucher doucement.

[한국어 번역: 그녀가 남자일 수도 있는 거지... 어쩌면, 조심스럽게 허벅지 사이를 만져보면서 안도했다.]

Julie ne sait plus qui elle est puisqu'elle devrait toujours faire comme quelqu'un d'autre pour être aimée.

[한국어 번역: 줄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받기 위해 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기에 더 이상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다.] (Bruei, 2014)

TT

그날 저녁, 줄리는 속이 상했어요. 만일 그 그림자가 진짜 내 그림자가 맞는 거라면?

어쩌면 줄리는 몸만 여자인 남자아이일지도 몰라요.

줄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만 했기 때문이에요.

(박재연 역, 2019)

<예시 3>은 국내에서 2019년에 출간된 『줄리의 그림자』로 여자 주인공 줄리는 외적 모습과 달리 선머슴같이 행동해 부모님의 걱정을 산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며 어느 날부터 자신의 그림자가 남자아이

로 바뀌며 혼란스러워한다. <예시 3>의 장면은 줄리에게 남자아이 그림자가 생긴 후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으로 ST에서 “avec cette fente entre les cuisses qu'elle aime bien toucher doucement [한국어 번역: 조심스럽게 허벅지 사이를 만져보면서 안도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에게 남자의 성기가 생긴 것인지 허벅지 사이를 만져 확인한 것으로 이 표현은 TT에서 삭제되었다. 해당 부분은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대해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이 부분이 삭제되며 원작이 의도한 바와 달리 줄리의 감정적, 정체성 고민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게 되었다.

4.1.2 젠더 정체성 표현이 드러나지 않은 LGBT 그림책

본 분류로 나뉜 그림책은 총 7권이며 원문에 젠더 정체성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그림책이다. 이 그림책들은 대체로 성 고정관념, 성 역할, 차별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찾고 인정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본 분류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유지, 명시화, 암시화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 항목의 횟수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젠더 표현 없는 LGBT 그림책의 항목 횟수

젠더 표현 없는 LGBT 그림책			
항목	유지	명시화	암시화
횟수	25	4	2
총횟수	31		

성과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 문제와 차별 등의 주제를 다룸에 있어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된 경우부터 살핀 후 명시화, 암시화 순으로 각 한 가지 예시씩 살펴본다.

<예시 4>

ST

I wish mine was blue like all of the others, I wish mine was blue like my

Dad's and my brothers.

(Stewart, 2020)

TT

내 그림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파란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그림자도 아빠나 형들처럼 파란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지양 역, 2021)



<예시 4>는 『내 그림자는 핑크』의 장면으로 아빠와 같은 남성의 그림자는 파란색인 반면, 남자 주인공의 그림자는 핑크색으로 자신의 그림자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파란색이길 바라는 주인공의 마음을 그린 모습이다. ST의 “mine was blue like all of the others”, “mine was blue like my Dad's and my brothers.”는 각각 “내 그림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파란색”, “내 그림자도 아빠나 형들처럼 파란색”으로 번역되며 ST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TT에서도 그대로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시 5>

ST

“Mermaids”, whispers Julian. “Like you, mijjo. Let's join them.” And they do.

(Love, 2018)

TT

“인어다”, 줄리안이 속삭였어요. “그래 우리 꼬마 인어도 같이 가볼래?” 인어들은 함께 걸었어요.

(김지은 역, 2020)



<예시 5>는 2020년에 출간된 『인어를 믿나요?』의 한 장면이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도 언급된 이 도서는 LGBT를 의미하는 인어가 등장한다. 이 책은 주인공인 줄리앙이 할머니에게 자신도 인어임을 밝힌 후 할머니가 줄리앙을 인어 축제에 데려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어를 믿나요?』에 등장하는 인어는 성소수자를 의미한다(John, 2020). 이러한 맥락에서 ST의 “Like you, mijo”⁹⁾라는 표현은 할머니가 손자를 인어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ST에서는 LGBT를 상징하는 “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반면, TT에서는 “우리 꼬마 인어”라고 표현하여 “인어”라는 용어가 뚜렷하게 사용됨으로써 젠더 정체성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T에서 함축적이었던 부분이 TT에서 명시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시 6>

ST

It's just that the boys at school talk about football all the time. Mum, is there such a thing as a Tomgirl?

Tomgirl? Raffi, you are our wonderful boy with your own special interests.

Dad and I are very proud of you.

(Pomranz, 2014)

9) mijo는 스페인어로 ‘아들’이라는 의미와 함께 ‘sweetheart’를 대신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https://www.dictionary.com/e/translations/mija/>

TT

남자애들은 맨날 축구 얘기만 해요. 엄마, 나 정말 여자애 같은 거 아니죠?

여자애라니? 라피, 좋아하는 게 다른 애들이랑 다를 뿐이지 넌 엄마 아빠의 훌륭한 아들이야. 엄마 아빠는 네가 아주 자랑스럽단다.

(천미나 역, 2015)

<예시 6>은 『뜨개질하는 소년』으로 남자 주인공인 라피는 또래 남자아이들과 달리 조용하고 뜨개질을 좋아하는 인물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내용이다. 해당 장면은 라피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후 엄마와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ST의 “a Tomgirl”은 옷, 활동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남자를 일컫는 어휘¹⁰⁾로 남자아이인 라피가 여자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TT에서는 단일적으로 “여자애”라고 번역되며 그 의미가 축소되어 ST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

4.2 LGBT 그림책 파라텍스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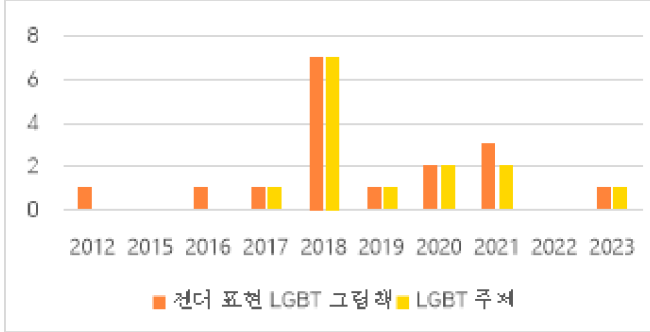
4.2.1 국내 출판사의 책 소개 및 리뷰

본 절에서는 텍스트에서 구분한 젠더 정체성 표현 유무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도서의 출판사가 제공하는 책 소개 및 리뷰를 고찰한다. 먼저, 젠더 정체성 표현 그림책은 그림4에서 LGBT 주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10) LGBT와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는 포털사이트인 Gender Wiki에서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https://gender.fandom.com/wiki/Tomgirl>

그림 4

출판사의 책 소개 및 리뷰에 나타난 LGBT 주제 추이 (젠더 표현 LGBT 그림책)



[그림4]에서 볼 수 있듯 출판사는 2017년부터 LGBT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8년에 유독 많은 출간과 더불어 LGBT 주제가 높은 것은 ‘인권선언 시리즈’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2022년도에는 젠더 표현 없는 LGBT 그림책만 출간되었다. 젠더 표현 LGBT 그림책은 2017년 이후부터 LGBT 주제가 꾸준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GBT 주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2017년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의제로 금기시되었던 동성애가 처음으로 정치적 입장으로 제시되면서 첨예한 논란이 있었고(성승은, 2018, p. 288; 한희정 2019, pp. 129-130), 2018년에는 LGBT 문학이 활발한 창작과 함께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편정인, 2020, p. 50).

<예시 7>과 <예시 8>을 통해 출판사가 그림책의 LGBT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예시 7>

더불어 사랑한다면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모라도 사랑을 통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입양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아기 펭귄 탱고(Tango) 이름처럼, 혼자서는 출 수 없는 춤, 탱고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이 가족을 이루는 기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나눔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값진 책입니다.

(강이경 역, 2012)

<예시 7>은 2012년에 출간된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의 책 소개이다. 텍스트 분석에서도 논의한 이 도서는 수컷끼리의 사랑인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 책의 내용과 달리 출판사는 동성애에 대한 언급 없이 입양에 관한 책으로 가족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이 출간된 시기는 2012년으로 당시 LGBT에 대한 인식이 최근보다 더 보수적이었기에¹¹⁾ 출판사는 동성애의 관점보다는 입양에 초점을 맞춰 그림책을 소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시 8>

시대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바뀌어도 가족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전부 혈연으로 맺어져야만 할까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다 한 집에서 살지도 않아요. 따로 살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족의 형태가 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예요. 나를 낳아 주시진 않았지만 길러 주신 부모님이 따로 있다면 그분들도 가족일 수 있고요. 게다가 부모님이 꼭 엄마와 아빠일 필요도 없답니다. 아빠 혹은 엄마만 두 분이 계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고맙고 자랑스러운 나의 부모님인 거죠! 그럼 누구는 가족이고 누구는 가족이 안 되는 기준은 뭘까요?

(이미에 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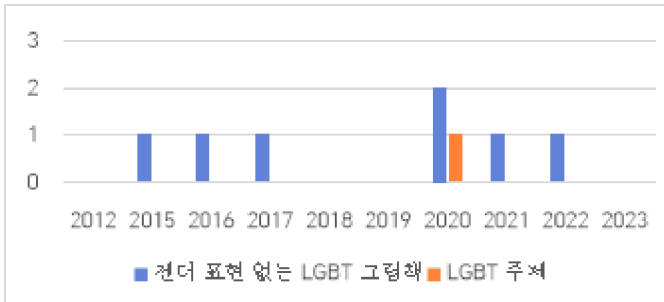
<예시 8>의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는 2017년에 출간된 책으로 일반 가족, 수양 가족, 입양 가족, 동성 부부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소개하는 그림책이다. 출판사의 책 소개 부분에는 “부모님이 꼭 엄마와 아빠일 필요도 없답니다. 아빠 혹은 엄마만 두 분이 계시실 수도 있어요”가 언급되며 동성 부부 가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책 본문에서 동성 부부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출판사가 책 소개 부분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성소수자를 수용하는 표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예시 7>과 달리 <예시 8>에서는 LGBT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1) 2020년에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LGBT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19% 증가했다. 2012년은 2019년도에 비해 LGBT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보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젠더 표현 없는 LGBT 그림책의 경우, 그림 5를 통해 LGBT 주제 추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출판사의 책 소개 및 리뷰에 나타난 LGBT 주제 추이 (젠더 표현 없는 LGBT 그림책)



젠더 표현 없는 LGBT 그림책은 책 소개 및 리뷰에서 LGBT 주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요소를 강조하고 있음을 예시를 통해 살펴 보겠다.

<예시 9>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자 색과 남자 색, 여자 장난감과 남자 장난감을 구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을 스스로 정의해 갑니다. 편견적인 인식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융통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특히 고정된 성 역할, 우열 관계로 구분되어지는 인종, 맹목적인 문화 우월주의 등 어릴 때부터 형성된 작은 편견이 우리의 생활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릴 때부터 편견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는 ‘반편견 교육’이 무척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미나 역, 2015)

<예시 9>는 2015년에 출간된 『뜨개질하는 소년』으로 출판사에서는 고정된 성 역할, 문화 우월주의 등 편견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기에 “반편견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책의 내용에는 인종과 문화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출판사가 해당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편견과 차별

을 중점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젠더 표현 없는 LGBT 그림책 중 2020년도에 출간된 『인어를 믿나요?』의 인어는 그림책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지만 해당 그림책에서는 성소수자를 지칭하는데, 이를 출판사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본다.

<예시 10>

남자아이가 자신을 사회가 규정한 남자다운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꾸미는 장면이 가감 없이 드러남으로 인해, 생물학적 성별을 근거로 만들어진 사회적 규범에 익숙한 다수는 『인어를 믿나요?』에 등장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다소 불편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줄리앙의 행동이 얼마나 그를 그답게 만드는가를 보여 주고, 묵묵히 줄리앙이 나아가는 길에 동행한다. 작가의 사려 깊고 다정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줄리앙을 사이에 두고 논쟁 대신 서로 공감할 것이라고 믿는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피해 갔던 문제를 양지에 드러내 보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감탄하는 기쁨을 선사할 그림책이다.

(김지은 역, 2020)

『인어를 믿나요?』를 펴낸 곳은 대형 출판사¹²⁾인 웅진주니어이다. 대형 출판사는 대체로 LGBT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며 수용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신보정, 2022, p. 74). 이에 따라 웅진주니어 출판사는 그림책에서 인어를 LGBT 주제로 다루는 적극적인 시도를 했고, 더불어 책 소개 글에서 “피해 갔던 문제를 양지에 드러내 보이고”와 같은 언급을 통해 LGBT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포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2 뒤표지

원서의 뒤표지와 비교하여 번역서 뒤표지에 변경, 추가 등의 차이를 보

12)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행한 「2019년 출판시장통계」에 따라 웅진주니어는 국내 주요 단행본 출판사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0위에 오른 출판사로 대형 출판사로 구분한다.

이는 도서는 총 13권이 분류됐다. 뒤표지 분석에서는 모든 도서를 다루지 않고 단순 줄거리를 추가하거나 문단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도서는 제외하고 LGBT에 대한 표현 변화가 나타난 9권(젠더 표현이 드러난 그림책에서 6권, 드러나지 않은 그림책에서 3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젠더 정체성이 드러난 LGBT 그림책을 탐색한다.

<예시 11>

ST

“A touching and delightful variation on a major theme.”—Maurice Sendak
 “This wonderful story of devotion is heartwarming proof that Mother Nature knows best.” —Harvey Fierstein
 “Charming! And Tango Makes Three proves that all kinds of love can create a family.”—Wendy Wasserstein
 “A little miracle for children. Funny, tender, and true, the story of Tango will delight young readers and open their minds.”—John Lithgow

(Parnell & Richardson, 2005)

TT

중요한 주제를 감동적이고, 푸근하고, 기분 좋게 풀어냈다.-모리스 센닥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림책 작가)

혼자서는 줄 수 없는 춤, 탱고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이야말로 가족을 이루는 기본 요소임을 이 그림책은 잘 보여 준다. -엄혜숙(그림책 연구자, 평론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부모는 누구인가? 사랑은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진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딱 맞게 펼쳐낸 멋진 그림책.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흠뻑 배어 있는 이야기와 그림이 슬며시 웃음 짓게 한다. - 김경희(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교육문화국장)

(강이경 역, 2012)

<예시 11>은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의 뒤표지로 2012년에 출간된 가장 초기 작품으로 수컷 펭귄들의 사랑을 다룬 동성애 주제가 있는 그림책이다. ST의 추천평 중 Maurice Sendak을 제외하고 TT에서 모두 변경되었으나 ST와 유사하게 TT에서도 가족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시 12>

ST

“*A Day in the Life of Marlon Bundo* is a masterpiece(이하 중략)“-

Bubbles the Goldfish

“This book was delicious!”- anonymous grizzly bear.

“I know garbage. I've spent my life in garbage. And Marlon Bundo is not garbage!”- Waffles the Raccoon

“ugh” - every cat

(Twiss & Bundo, 2018)

TT

성소수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게 신랄하고도 강력한 한방을 날리는 그림책! - 뉴욕타임즈

미국 부통령 가족의 그림책을 패러디해 단 하루만에 아마존 베스트 1 위에 올랐다! - BBC

무진장 웃기고 엄청나게 매력적이다! - 피플 매거진

성인과 어린이 독자 모두를 위한 패러디 그림책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이하 중략)

(김지은 역, 2018)

<예시 12>는 『사랑에 빠진 토끼』로 2018년에 출간된 도서이다. ST의 뒤 표지에 실린 문장들은 TT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내용이 완전히 수정되었다. 또한, 출판사가 원서에는 존재하지 않던 “성소수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게 신랄하고도 강력한 한방을 날리는 그림책!”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책이 LGBT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출판사는 추천평을 통해 책 제목과 표지 그림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을 유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예시 13>

ST

No matter what your gender identity is, you are okay exactly the way you

are. And you are loved.

(Thom, 2019)

TT

어떤 아이는 여자입니다. 어떤 아이는 남자이고요. 어떤 아이는 둘 다이기도 하고, 둘 다 아니기도 하고, 둘 가운데 무엇이기도 해요.

트랜스젠더, 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이 책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에 관한 개념들을 아이들 눈높이에 꼭 맞는 글과 활기 넘치는 그림으로 소개합니다. (이하 중략)

(조고은 역, 2020)

<예시 13>는 『나의 젠더 정체성은 무엇일까?』로 2020년도에 출간된 책으로 ST에서 전하는 “자신 그대로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TT에서 젠더 정체성의 개념 설명이 추가되어 ST 출판사에서 전하는 내용보다 더 구체화되었다.

이제 젠더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은 LGBT 그림책의 뒤표지를 살펴본다. 본 분류로 나뉜 그림책들은 성 역할, 성 고정관념 등의 주제를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출간된 『뜨개질하는 소년』의 <예시 14>을 통해 살펴보겠다.

<예시 14>

ST

Raffi feels different from the other children at school - he doesn't like noisy games, and sometimes he gets teased. But when Raffi discovers knitting and sewing, everything changes.... and everyone wants to have something that is - Made By Raffi!

“Vibrant, affectionate and inclusive, this is a book which celebrates difference and shows that being creative is cool” - Reading Zone

(Pomranz, 2014)

TT

라피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아주 조금 달라요! 라피는 반에서 제일 키가 작고, 머리카락이 길고, 밝은색 옷을 좋아해요. 다른 친구들은 테슬라 테슬라 구르고,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놀았지만 라피는 시끄러운 소리나

거친 놀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놀림을 당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라피가 뜨개질과 바느질을 알게 된 뒤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 이 세상의 모든 창의적인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

(천미나 역, 2015)

<예시 14>는 『뜨개질하는 소년』으로 출판사는 ST의 줄거리 내용을 TT에서 약간 변경했으나 ST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ST의 ‘Reading Zone’의 추천평이 삭제되고, TT에 “이 세상의 모든 창의적인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라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었다. ST에서는 포용력과 차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TT에서는 오직 창의성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변경하며 LGBT 주제를 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국내 LGBT 그림책의 젠더 정체성 번역을 텍스트와 파라텍스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국내 첫 LGBT 그림책부터 현재까지 출판된 LGBT 그림책 번역이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텍스트 측면에서 LGBT 그림책은 젠더 정체성 표현 유무에 따라 젠더 정체성이 드러난 그림책과 젠더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그림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젠더 정체성이 드러난 LGBT 그림책에서의 젠더 정체성 표현은 “트랜스젠더 여자아이”, “아빠, 파파와...” 등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났지만, 젠더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LGBT 그림책은 성차별, 성 고정관념 및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두 분류에서 ST의 의미를 TT에서 그대로 전달한 ‘유지’, ST에 암시되거나 나타나지 않은 요소를 TT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낸 ‘명시화’, ST의 구문이 TT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된 ‘암시화’가 발견되었다. 두 분류 모두 ‘유지’가 가장 많았으며 ‘명시화’, ‘암시화’ 순으로 나타났다.

파라텍스트 측면에서도 젠더 정체성 표현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니 2017년을 기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출판사의 책 소개 및 리뷰 측면에서 살펴보면, 젠더 표현 그림책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LGBT 주

제를 드러내지 않았으나 2017년부터는 출판사가 책 소개 및 리뷰에 LGBT 주제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 권¹³⁾을 제외하고 2023년까지 계속해서 LGBT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젠더 표현 없는 그림책의 경우, 출판사의 책 소개 및 리뷰에서도 LGBT 주제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성 고정관념이나 성차별 탈피와 어린이 독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요소를 강조하였고 예외적으로 2020년도에 출간된 『인어를 만나요?』는 텍스트 측면에서는 젠더 정체성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출판사의 책 소개에서 LGBT 주제를 다룬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뒤표지 측면에서 고찰한 결과, 원문에는 없는 추천평이 추가되어 LGBT 주제를 강조한 예시와 원문에 있던 문구를 삭제한 후 표현을 첨가한 예시가 발견되었다. 젠더 표현 LGBT 그림책의 경우, 2017년부터 LGBT 주제를 나타냈으며 원문에 비해 번역문에서 LGBT 주제가 강조된 예시가 있었다. 젠더 표현 없는 LGBT 그림책의 경우, 출판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원서의 추천평을 삭제한 후 번역서에서 LGBT 주제를 축소하는 예시를 볼 수 있었다.

파라텍스트 측면에서 대체로 강조하는 LGBT 주제는 젠더 정체성이 드러난 그림책과 드러나지 않은 그림책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젠더 표현 LGBT 그림책의 경우, 성소수자 인권과 성소수자의 정체성 수용 등이 주제였고, 젠더 표현 없는 LGBT 그림책은 성 역할 고정관념 탈피와 인종·문화에 대한 편견 탈피, 자아 발견의 중요성 등을 논했다. 이를 보면 젠더 표현 LGBT 그림책에서의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수용에 관한 내용이 젠더 표현 없는 LGBT 그림책에서는 성차별, 인종·문화에 대한 편견, 자아 발견, 창의성 등의 주제로 나타남으로써 서로 연계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LGBT 논의는 페미니즘의 논의와 연속선상에 있는데(Flotow, 2020, p. 183-185), 페미니즘을 성차별, 성차별적 착취, 억압을 종식하기 위한 운동으로 정의할 때(Hooks, 2000, p. 1), 페미니즘의 성차별과 억압을 종식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성소수자의 성별에 기반한 제약을 넘어서려는 것과 연속선상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림책에서 나타난 LGBT 논의는 페미니즘, 인종·문화에 대한 편견 탈피, 자아

13) 제외된 한 권은 『결혼식에 간 홀리안』이다.

발견, 창의성 등의 폭넓은 주제로 표상되고 있었다.

본고의 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국내 LGBT 그림책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LGBT 그림책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텍스트에서의 젠더 정체성 표현에서 유지와 명시화가 암시화에 비해 훨씬 많았다. 출판사의 책 소개 및 리뷰와 뒤표지의 파라텍스트를 통해서도 출판사가 이 주제를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출판사가 제공하는 책 소개 및 리뷰에서 2016년까지는 LGBT 주제를 언급하지 않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LGBT 주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책의 뒤표지에 LGBT 주제를 추가하기 시작한 시점 또한 2017년 이후인 2018년이다. 따라서 출판사가 나타내는 LGBT에 대한 표현이 사회적 인식과 수용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이슈가 논란이 된 2017년과 LGBT 문학이 출간 호황을 누린 2018년을 분수령으로 이전보다 LGBT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동성애 수용이 최근 확대되었다고 한 퓨리서치센터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LGBT 어린이문학 번역은 도착 문화권의 LGBT에 대한 사회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함을(Epstein, 2017; Tarif, 2018; Morillas, 2021)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출간된 LGBT 번역 그림책을 전수 조사했으나, 출판사가 LGBT 주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에 LGBT 주제가 분명하지 않은 책들은 분석 대상에서 누락되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출판사가 LGBT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더 깊이 탐색하지 못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LGBT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의 변화가 LGBT 번역 그림책에서의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LGBT 주제가 페미니즘, 편견 탈피, 자아 발견 등의 주제와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보인 데에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규연과 하지수. (2020). 성소수자의 복식을 통한 젠더 정체성 표현.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0(4), 1-22.
- 김대유. (2021). 아동 성교육 도서의 선정성 논란에 대한 고찰 —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사업 시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지, 7(1), 1-13.
- 김세라와 양성은. (2022). 아동 그림책에 나타난 퀴어 이미지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31(3), 301-315.
- 김혜림. (2018). 학생번역자의 한중 번역에 나타난 명시화와 암시화. 중국언어연구, 78, 305-332.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1). 2019년 출판시장 통계 연구 보고서.
<http://kpa21.or.kr/kpa-data/statistics/>
- 무지개책갈피. <https://www.rainbowbookmark.com/>
- 성승은. (2013). 아동문학 번역의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정호정. (편), 통번역학 연구 현황과 향후 전망 (pp. 169-200). 한국문화사.
- 성승은. (2018). 번역을 통한 사회 참여 — 청소년 성소수자 담론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4), 287-302.
- 성승은과 신보정. (2023). 국내 어린이청소년문학에서 LGBT 도서의 수용 과정: 번역의 역할. 통역과 번역, 25(2), 89-116.
- 신보정. (2022). 국내 아동청소년문학 시스템 주체 퀴어 수용의 통시적 분석 — 출판사, 권장도서목록, 교사, 학부모, 번역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상빈. (2012). 문화번역과 젠더번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6(3), 23-42.
- 이성엽. (2022).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살펴본 크로스오버 그림책: Ipomée 출판사와 프랑스 그림책 Le Magasin Zinzin pour fêtes et anniversaires-aux merveilles d'Alys 연구를 중심으로. 프랑스 문화연구, 54(1), 275-297.
- 정신예. (2024). 국내 LGBT 번역 그림책은 젠더 정체성을 수용하는가?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편정인. (2020). 퀴어 청소년문학의 터전을 마련하다 — 초기 퀴어 청소년 소설의 의의와 한계 검토. *문화연구*, 8(1), 49-72.
- 한희정. (2019). 신문의 동성애 담론 분석: 2017년 대선 기간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9(1), 129-172.
- Alvstad, C. (2010). Children's literature and translation. In Y. Gambier & L.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pp. 22-27). John Benjamins.
- Amazon. Children's books on LGBTQ+ Families. <https://www.amazon.com>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Key terms and concepts in understanding gender diversity and sexual orientation among students. APA Divisions of School Psychology.
- Beckett, S. L. (2012). *Crossover picturebooks: A genre for all ages*. Routledge.
- Blakemore, E. (2021, October 20). From LGBT to LGBTQIA+: The evolving recognition of identity. *National Geographic*.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history/article>
- Blum-Kulka, S. (1986/2004). Shift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translation. In L. Venuti (Ed.), *Translation studies reader* (pp. 290-305). Routledge.
- Epstein, B. J. (2017). Eradicalization: Eradicating the queer in children's literature. In B. J. Epstein, & R. Gillett, (Eds.), *Queer in translation* (pp. 130-140). Routledge.
- Flood, A. (2019, November 11). I am proven joyously wrong: Picture book about trans child wins major prize amid moral panic.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9/sep/11/i-am-proven-joyously-wrong-picture-book-about-trans-child-wins-major-prize-amid-moral-panic>
- Flotow, L. von. (2020). Feminist translation strategies. In M. Baker & G.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pp. 181-185). Routledge.
- Frank, H. (2007). *Cultural encounters in translated children's literature*. St. Jerome.
- Goodreads. LGBTQ Children's Literature. <https://www.goodreads.com/list/show/>

15355.LGBTQ_Children_s_Literature

- Hooks, B. (2000). *Feminism is for everybody: Passionate politics*. South End Press.
- Jill, M. (1995). *Children's literature and critical theory: Reading and writing for understanding*. Oxford University Press.
- John, S. (2020, January 15). Boys Can Be Mermaids, Too. *Medium*. <https://medium.com/@sstjohn96/review-of-julian-is-a-mermaid-e68ae27d8166>
- Klaudy, K., & Károly, K. (2005). Implication in translation: Empirical evidence for operational asymmetry in translation.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6(1), 13-28.
- Lopez, M. F. (2006). Translation studies in contemporary children's literature: A comparison of intercultural ideological factors. In G. Lathey (Ed.),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A reader* (pp. 98-109). Multilingual Matters.
- Luecke, J. C. (2023). Using Literature to Make Expansive Genders Visible for Pre-adolescent Readers.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54(1), 17-38.
- Lukens, R. (2003). *A critical handbook of children's literature*. Pearson Education.
- Matos, A. D., & Wargo, J. M. (2019). Editors' introduction: Queer futurities in youth literature, media, and culture. *Research on Diversity in Youth Literature*, 2(1), 1-16.
- Mizzi, R. C., & Walton, G. (2014). Catchalls and conundrums: Theorizing sexual minority" in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contexts. *Paideusis*, 22(1), 81-90.
- Morillas, E. (2021). Children's picturebooks: LGBTQ translation. *Perspectives*, 31(2), 172-186.
- Munday, J., Pinto, S. R., & Blakesley, J. (202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5th ed.). Routledge.
- Poushter, J., & Kent, N. (2020 June 25). The global divide on homosexuality persists. <https://www.pewresearch.org>

- Queer Lit. Children's books about inclusion and diversity. <https://www.queerlit.co.uk/collections/childrens-books>
- Shavit, Z. (2006).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G. Lathey (Ed.),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A reader* (pp. 25-40). Multilingual Matters. (Original work published 1986)
- Shih, C. (2008). Corpus-based study of differences in explicitation between literature translations for children and for adults. *Translation Journal*, 12(3), 1-14.
- Świetlicki, M. (2020). Such books should be burned! Same-sex parenting and the stretchable definition of the family in Larysa Denysenko's and Mariia Foya's *Maya and her mums*.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51(4), 534-543.
- Tarif, J. (2018). Same-sex couples in children's picture books in French and in English: Censorship somewhere over the rainbow? *Meta*, 63(2), 392-421.
- Vinay, J. P., & Darbelnet, J. (1958/1995). *Comparative stylistics of French and English: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John Benjamins.

[부록] 분석 대상 도서 목록

젠더 정체성이 드러난 LGBT 그림책				
국내 출간 연도	도서명(원서)	저자	번역	출판사
2012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 (And Tango Makes Three)	Peter Parnell, Justin Richardson	강이경	담푸스
2016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Kärlekoboken)	Pernilla Stafelt	이미옥	시금치
2017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Welcome to the family)	Mary Hoffman	이미애	내 인생의 책
2018	사랑에 빠진 토끼 (A day in the life of Marlon Bundo)	Jill Twiss, Marlon Bundo	김지은	비룡소
2018	스텔라네 가족 (Stella brings the family)	Miriam B. Schiffer	김보람	불의여우
2019	아빠 인권선언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s papas)	Elisabeth Brami	박정연	노란페이지
2019	엄마 인권선언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s mamans)	Elisabeth Brami	박정연	노란페이지
2019	딸 인권선언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s filles)	Elisabeth Brami	박정연	노란페이지
2019	아들 인권선언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s garçons)	Elisabeth Brami	박정연	노란페이지
2019	줄리의 그림자 (Histoire de Julie qui avait une ombre de garçon)	Christian Bruel	박재연	이마주
2020	그래도 넌 내 친구! (Introducing Teddy: A gentle story about gender and friendship)	Jessica Walton	황진희	여유당

2020	나의 젠더 정체성은 무엇일까? (It feels to be good to be yourself: A book about gender identity)	Theresa Thorn	조고은	보물창고
2021	결혼식에 간 훌리안 (Julián at the wedding)	Jessica Love	신형진	보물창고
2021	누가 진짜 엄마야? (Who's your real mom?)	Bernadette Green	노지양	원더박스
2023	할아버지가 사랑한 무지개 (Grandad's pride)	Harry Woodgate	김다현	쥬쥬베박스

젠더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LGBT 그림책				
국내 출간 연도	도서명	저자	번역	출판사
2015	뜨개질하는 소년 (Made by Raffi)	Craig Pomranz	천미나	그림책과 콩나무
2016	원피스를 입은 모리스 (Morris Micklewhite and the tangerine dress)	Christine Baldacchino	신수진	키다리
2017	빨강 크레용의 이야기 (Red: A crayon's story)	Michael Hall	김하늬	봄봄
2020	인어를 믿나요? (Julián is a mermaid)	Jessica Love	김지은	웅진주니어
2020	조금 다르면 안 돼? (A little bit different)	Claire Alexander	홍연미	국민서관
2021	내 그림자는 핑크 (My shadow is pink)	Scott Stewart	노지양	다산 어린이
2022	프레드가 옷을 입어요. (Fred gets dressed)	Peter Brown	서애경	사계절

Textual and paratextual transformations in translated LGBT picturebooks in South Korea

Shin-ye Jeong

Department of English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ung-eun Sung (corresponding author, michsung@hufs.ac.kr)

College of Convergence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As LGBT themes gain increasing visibility worldwide, picturebooks featuring LGBT themes have become more widely available. However, given the sensitive nature of this topic in South Korea, as well as the influence of adult perspectives on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ed LGBT-themed picturebooks often experience modifications in both their texts and paratex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examines the portrayal of LGBT themes in picturebooks translated into Korean, from the first publication to the most recent ones. Both texts and paratexts are explored: for text analysis, the translation of gender identity into Korean is investigated in terms of explicitation and implicitation; for paratextual analysis, publishers' introductions/reviews and back cover blurbs are examined. The results indicate that LGBT picturebook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one including the presence of gender identity, and the other without it. We argue that the Korean society has been gradually receptive to LGBT picturebooks, particularly since 2017. Furthermore, LGBT themes are discussed in the picturebooks in conjunction with a broader range of themes, including feminism, eradication of racial and cultural biases, self-discovery, and creativity.

Keywords: Gender identity; explicitation/implicitation; dual readership; paratext; text;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키워드: 젠더 정체성, 명시화/암시화, 이중 독자, 파라텍스트, 텍스트, 어린이문학 번역

156 번역학연구, 25(1)

정신예 (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번역학과 석사

sinm330@naver.com

성승은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대학 부교수

michsung@hufs.ac.kr

논문 투고일: 2024년 2월 14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3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3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4년 3월 15일